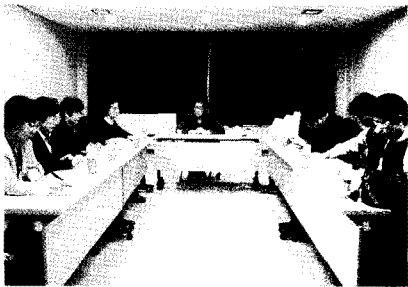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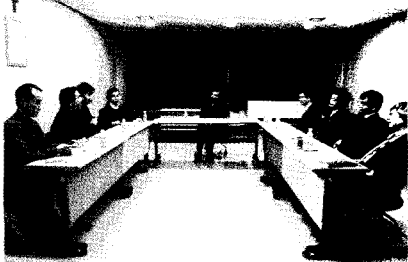




**한국가톨릭의료협회**

**북한의료봉사단 회의, 국내 및 해외 의료봉사단 회의**



2월 24일 6시부터 신완식 북한의료봉사단장 외 9명이 참석한 북한의료봉사단 회의에서 올해 한국가톨릭의료협회(회장 이동익 신부)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 받게 된 것과 북한의 검진센터의 추후 공사 관련 사업, 대북지원사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2월 26일에는 의료봉사위원장 신완식 교수 외 8명의 국내의료봉사단원, 해외 의료봉사단원 및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 및 해외의료봉사 사업 계획에 따른 시행 방향을 논의하였다.

**성마리아병원 기사그룹 연수**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10일간 한국가톨릭의료협회를 통해 선발된 기사

그룹(여의도성모병원 이진주 방사선사와 5명)이 일본 성마리아병원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연수는 방사선과, 진단검사의학과, 약제부, 영양팀으로 4개의 관련부서에 의뢰하여 연수가 진행되었으며, 한국의 연수생을 통해 일본 성마리아병원의 의료진 또한 한국의 발전된 의료기술 등에 관한 교류를 결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더욱이 가톨릭이념 아래 함께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일본에서의 가톨릭이념의 실천과 서비스마인드를 배웠고 연수생들 모두가 한·일 교류가 다방면에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평양 종합 검진·검사센터 모니터링 위해 방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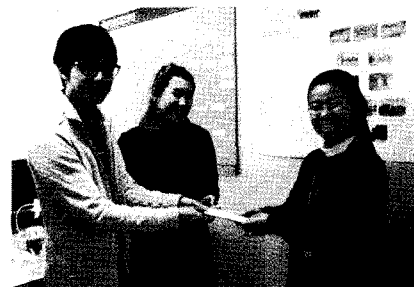
최리현총경감(왼쪽)은 평양에서 최화환에게 감사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이동익 신부(한국가톨릭의료협회장 &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외 8인이 북한 평양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북을 통해서 본 협회의 북한의료지원사업자인 평양종합검진센터를 방문하여 공사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지원물자를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

**유기영, 한희민 학생, 천연비누 제작 판매수익금 100만원 북한의료지원금으로 기부**

4월 2일 오후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사무실에 뜻밖에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Nudge the World (작은 행동으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모임)의 유기영 (Cranbrook School, 10th), 한희민 (Culver Academy, 10th) 학생이 한국



가톨릭의료협회와 북한의료지원사업 평양 종합검진·검사센터 건설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주)코랩시스의 홍명희 안셀모 사장의 소개로 찾아온 것이다. 이 학생들은 Nudge the World의 2009년 첫 번째 프로젝트로 장애인들과 함께 천연비누를 만들어 모금 활동을 하여 생긴 수익금 100만원을 한국가톨릭의료협회 북한의료지원 후원금으로 기부하였다. 본 협회도 학생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정성에 보답하도록 북한 주민들의 보건 의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북지원 성금 잇달아...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에서도**



4월 5일,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회장 이동익 신부 집무실에서 한성숙 살레시아 수녀(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총원장)가 북한의료지원사업에 동참하기 위한 기부금 일천 만 원을 전달하였다.

본 협회의 대북지원 사업은 2000년 5월 '한국가톨릭병원협회' 이사회를 통한 북한의료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을 시작으로 2008년 3월 회장단이 평양 의료 시설을 방문함으로써 본격화 되었으며 현재 민간단체 합동사업과 개별 의료지



원 사업으로 평양에 북한 종합검진·검사센터 개설 및 주민검진사업이 진행 중이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10년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선정

본 협회의 몽골 다르항 제1병원 안과 지원사업이 외교통상부 산하 대외 공적개발원조 실시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2010년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4월 2일자로 약정이 체결되었다.

본 협회는 1987년부터 개발도상국의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쳐오고 2006년부터 2007년은 몽골 자갈란트 지역, 2008년부터는 몽골 다르항 지역에서 의료 봉사와 물품지원, 어린이 초청진료, 의료진 초청연수 등을 해왔다. 더불어 2009년부터 시작된 안과 특화 진료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에는 KOICA와 함께 다르항 제1병원의 안과를 지원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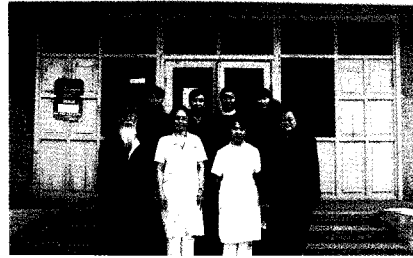
※ 몽골 다르항 제1병원 안과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명 : 몽골 다르항 제1병원 안과 지원 사업(Improving the department of ophthalmology in Mongolia Darkan Central Hospital)
- 사업목표 : ① 다르항 제1병원의 안과 의료 환경의 질적·양적 향상 ② 다르항 지역과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 건강 증진 ③ 안 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증진
- 사업내용 : ① 다르항 제1병원 기자재·약품 지원 ② 한국 의료진의 수술 및 의료기술 지원 ③ 현지 의료인력 한국 초청 교육
- 협력기관 : 돈보스코 청소년회관 & 다르항 제1병원

### 몽골 다르항 해외의료봉사 답사

4월 5일부터 9일까지 김영훈 교수(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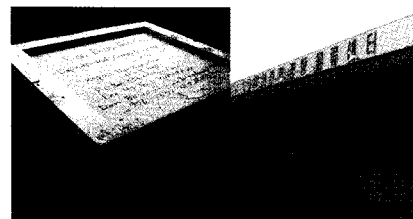
### ИЭГДСЭН ЭМНЭЛЭЙ



의료봉사단장 & 의정부성모병원장) 외 4인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2010년 몽골 의료봉사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을 설정하기 위해 몽골 울 아이막 다르항으로 답사를 다녀왔다.

3박 4일 일정 동안 답사단은 몽골 다르항의 전반적 지역 환경과 2010년 몽골 의료봉사 예정지의 환경 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업의 방향과 세부 일정을 확정하였다. 더불어 관련 기관(다르항 보건국, 다르항 제1병원, 다르항 18번학교, KOICA 현지사무소)들과의 미팅을 통해 협력 체계도 구축할 수 있었다.

### 몽골 해외의료봉사를 위한 의료장비 선적



본 협회의 2010년도 해외의료봉사가 몽골 다르항 시(1차, 2차)와 필리핀 나보마스 시(3차)에서 있을 예정이다. 우선 1차 해외의료봉사를 위해 몽골 다르항 제1병원에서 안과 사시수술과 성형외과 화상 및 피부이식수술을 위한 의료장비(소독기, 환자모니터 외..)들을 5월 7일 인천항에서 배로 선적하였으며, 2차와 3차 해외의료봉사를 위한 물품도 준비 중이다.

### 평양에 대북의료지원사업을 위한 제5차 지원 물자 탁송



5월 14일 평양종합검진센터 건립지원 물자를 인천항에서 선적하였다. 시멘트와 철강 등 건축에 필요한 기자재들이 선적되었으며 이 사업은 본 협회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나눔인터내셔널 등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협동사업이다.

### 가정간호 분과위원회

5월 15일(토) 토요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604호에서 제8차 가정간호 분과위원회(위원장 정현숙 수녀)가 개최되었다. 6개 병원에서 12명이 참석했으며 가정간호 대상자를 위한 '영적간호' 보수교육과, 영적간호 리더 프로그램(6주)의 소개가 있었으며 한국가톨릭가정간호사회 발기 문제를 논의하였다.

### 임상사목 세미나 개최

한국가톨릭의료협회가 주관하고 본 협회 원목분위원회(위원장 이재철 신부)와 CMC 가톨릭임상사목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임상사목세미나가 5월 18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별관 2층 임상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어린이 환자를 위한 사목적 배려'의 주제로 21개 병원의 원목자 및 자원봉사자 등 총 52명이 참석하였다. CMC 가톨릭임상사목연구소장이며 본 협회 원목분과위원장 이재철 신부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제1강의는 가톨릭임상사목연구소 이건 연구원의 '어린



이 환자를 위한 사목적 접근', 제2강의는 의정부성모병원장 김영훈 교수의 '어린이 질병에 대한 Etiology적 접근' 제3강의는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구현영 교수의 '어린이환자의 심리적 특성과 가족 스트레스' 제4강의는 성빈센트병원 CPE 센터장 정무근 신부의 '어린이 환자와 부모를 위한 영적 돌봄 사례 분석'으로 원목자들이 실제 어린이 환자를 방문하여 상담한 3건의 사례를 통해 어린이 환자의 사고, 원목자들에게 요청되는 적절한 상담 기술, 질병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가족 돌봄을 위한 대화 방법 등을 분석하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사목자들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 위의 세미나는 한국가톨릭의료협회가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제23차 국제학술대회(2008.11.13~15)에 파견한 6명의 참석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필리핀 나보파스 지역 어린이 돕기, 신완식교수 1,000만원 기부



5월 26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6층 협회장 이동익 신부 집무실에서 본 협회 의료봉사위원회 위원장이며 요셉의원 의무원장이신 신완식 교수의 기부

금(1,000만원) 전달식이 있었다. 이 금액은 필리핀 나보파스 지역 어린이 돕기에 쓰여질 예정이다.

### 한국가톨릭병원협회

#### 일본 가톨릭계 병원견학 및 성지순례



한국가톨릭병원협회(회장 이동익 신부)는 '2010년 일본 가톨릭계 병원견학 및 성지순례'를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15명이 다녀왔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 가톨릭의 역사와 가톨릭계 병원에서의 가톨릭 이념이 병원 운영에 접목되는 모습 등을 견학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일본 가톨릭계 병원 중 '나가사키시 성프란치스코병원, 고토 성마리아병원, 구루메시 성 마리아병원' 3곳의 병원견학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 내 환자 치료에 앞장서는 모습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나가사키와 고토 성지순례를 통해 일본 가톨릭의 역사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더욱이 모두가 '숨은 기리스탄'이라는 일본 순교자들의 정신을 느끼고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다.

### 한국가톨릭의사협회

#### 한국가톨릭의사협회 피정 및 제42차 정기총회



한국가톨릭의사협회(회장 박장상 교수)가 주최하고 수원교구 가톨릭의사회가 주관하는 피정 및 제42차 정기총회가 "첫 마음의 향기와 영성"이라는 주제로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안양 성라자로 마을 아론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전국에서 9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오후 4시부터 아론의 집 성당에서 십자가의 길 예절이 거행 되었으며 수원교구 가톨릭의사회 손승협 회장과 회원가족들의 정성어린 준비와 성대한 환영식이 있었다.

특히 피정의 집 입구에 고 노기남 대주교의 흉상과 업적이 새겨져 있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들어오라, 홀로 머물러라, 다른 사람이 되어 나가라"라는 문구가 인상적이었다.

오후 5시에 수원교구 교구장이신 이용훈 주교의 집전으로 개최 미사가 시작되었으며, 한국가톨릭의사협회 지도신부인 이동익 신부와 수원교구 가톨릭의사회 지도신부인 최석열 신부가 함께 했다.

이용훈 주교는 강론에서 예수님께서서 각 계각층의 병자들(나병, 중풍, 앓은뱅이, 마귀에 걸린 환자)을 고쳐 주신 것과 같이, 병들고 고통 받고 신음하는 환우들을 고쳐주는 것은 의사들의 사명이며 목숨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하는 가톨릭 의사가 되어야 한다. 의사들도 성직자 역할의 일부이란 것을 명심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교회는 옳지 못한 일에



침묵하지 말고, 인간생명 존중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저녁식사 후 7시부터 이번 피정의 주제인 “첫 마음의 향기”에 대한 강의가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센터 정무근 다미안 신부에 의해 진행되었다. 의사가 된 후 처음 선서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사의 본분과 의무, 책무, 윤리관을 선서하는 내용이지만 세파에 시달려 살다보면 퇴색되어 버리는 마음을 다시 첫 마음의 향기로 되돌아가자는 내용이었다.

밤 8시 30분부터 개별 고백성사 후, 9시 30분부터는 수원교구 가톨릭의사회에서 준비한 음식과 다과 막걸리 소주 과일 등을 맛있게 먹으면서 각 교구의 지난해 활동을 보고하고, 교구별 장기 자랑, 노래자랑 등이 흥겹게 진행되었다.

이동익 지도신부는 한국가톨릭의사회는 다른 신심 단체보다 그 의미가 크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본 협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격려 하였다.

3월 21일 일요일 아침 6시 30분부터 성라자로마을 야외 산에 마련된 십자가의 길을 하기 위하여 함께 산에 올랐다.

양지바른 곳에 마련된 예수님의 수난처(14처)에서 우리 회원,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통을 1처 1처 지날 때마다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예절을 마쳤다.

2번째 강의는 “영성 이해와 영성 안에서 의학적인 입장”에 대하여 영통성령성당 정영식 바오로 신부가 진행하였다.

이어 이동익 지도신부의 집전으로 파견 미사가 봉헌되었으며, 가톨릭의사들의 정체성과 사명감에 대한 강론 말씀이 있었고, 1박 2일의 피정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렸다.

이어진 제42차 정기총회에서는 업무보고, 재무보고, 기타 안전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특히 이동익 지도신부는 한국가톨릭의사협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 배가 운동과 자발적인 참여와 가톨릭 의료인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적극 협력하여 달라고 당부 하셨다.

대구교구의 김종강 고문께서는 교구별 연회비가 5년 전에 책정된 것이니 교구 분담금을 증액시키자고 권의하였다.

그외 오는 5월 7일에서 9일, 프랑스 루르드에서 개최되는 세계가톨릭의사회 총회 참석과 성지순례에 대한 안내가 있었으며, 2011년 제43차 한국가톨릭의사회 피정 및 총회는 서울교구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임원 개편이 있었으며, 회장단은 재임이 되었고 서울대교구 가톨릭의사회장인 고영초 교수(건국대병원 뇌신경센터 소장)와 이진창(이진창 내과) 원장이 감사로 선출되었다.

까지 함께해 주어 더욱 많은 신앙적 지식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굽이굽이 삼덕고개(신덕, 망덕, 애덕고개)를 넘어 미리내에 도착하니 오후 5시. 꼬박 4시간동안 16Km를 걸었다.

고개마다 서 있는 고개비 앞에서 신부님이 해주신 설명과 기도는 마음에 깊이 새겨졌으며 우리가 그렇게 힘겹게 걷고 건너고 오르고 내리는 그 모든 시간을 주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하니 뿌듯했다.

### 한국가톨릭약사회

#### 이재철 요셉 신부(가톨릭약사회 지도신부) 은경축



4월 11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한국가톨릭약사회 지도신부이며 가톨릭중앙의료원 이념구 현실장인 이재철 요셉 신부의 사제수품 25주년을 맞는 뜻 깊은 은경축 행사(미사와 축하식, 축하연)가 열렸다.

1959년 경기도 출생인 이재철 신부는 가톨릭대를 졸업하고 1985년 2월 사제품을 받은 뒤 풍납동, 중곡동, 해방촌, 개봉동본당 등 주임을 역임했다.

“주님의 성령을 받아, 늘 영육 간에 건강하시고, 양떼들이 늘~ 감동 먹는 목자 되시옵소서~”

###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 「은이성지」 도보 성지순례



4월 10일, 새로운 임원진으로 구성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채계순 수녀) 중앙이사진의 도보 성지순례가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은이성지에서 있었다.

한국의 첫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소년 시절을 보내고 사목활동을 한 곳이다.

미사와 점심식사 후 간단한 몸풀기 운동을 하고 도보 성지순례를 시작했다.

양형권 신부(성지 담당)와 김화태 신부(평택대리교구장)가 미사부터 성지순례